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대학교	기간	1/13-2/2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랑가라 대학은 밴쿠버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운타운 까지는 지하철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는 스타벅스, 서브웨이, 팀 홀튼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첫날에 학교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서 교실을 찾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p>
수업	<p>수업은 15명이 분반 없이 같이 하고, 1명의 선생님과 함께 3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수업 준비는 전날 준 숙제만 해가면 됩니다. 수업 자료는 첫날 바인더를 나눠주고, 바인더로만 수업이 진행됩니다. 노트북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수업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불편한 점은 EO(English Only) 규칙으로 영어로만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은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고, 하루 종일 수업하는 날도 있지만 오후에 액티비티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p> <p>3주 동안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업입니다. 영어 실력을 높이기 보다는 문화를 배우고 밴쿠버를 돌아다니는 데에 주 목적을 가지고 온다면 3주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Activity	<p>그랜빌 아일랜드-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공간이고, 수공예품을 파는 곳과 시장 같은 퍼블릭 마켓이 있어서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여기서 기념품 쇼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밖에서 음식을 들고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갈매기들이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p> <p>밴쿠버 박물관-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사진을 찍을 곳도 많습니다. 박물관 근처에 공원이랑 해변가도 있어서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p> <p>컬링-컬링은 배우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도 배우다 보면 재미있고,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컬링장이 추울 수 있으니 장갑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p>

	<p>밴쿠버 아쿠아리움-실내에 많은 물고기가 많지만, 당일 스케줄 표를 보고 야외에서 진행되는 트레이닝이나 펭귄 만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러 다니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p> <p>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고소공포증이 없다면 충분히 즐길만한 장소이고, 아쉬운점은 15명이 다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의 밴쿠버는 '레인쿠버'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동계어학연수 기간에는 비가 3일 정도 밖에 안와서 좋았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우산보다는 접이식 우산이 수납이 편리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수업이 세시에 끝나고 해도 빨리 지기 때문에 다운타운에 올라가서 놀다 보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 그래도 안전한 것 같습니다. 흡리스가 많고, 길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말 점심에 혼자서 다운타운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혼자 다니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홈스테이는 배정되는 가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배정받은 홈스테이 가족은 정말 좋았습니다. 반지하에 살았지만 개인 화장실이 있었고, 애들이 가끔 내려오는 것을 빼면 다 좋았습니다. 캐나다에 가기전에 홈스테이 배정이 나오면 홈스테이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필요한 물품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샴푸나 바디워시 드라이기가 있는지 물어보면 짐 싸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드라이기는 전압 때문인지 바람이 약하게 나옵니다. 홈스테이에서 주는 드라이기가 훨씬 바람이 잘 나오니 드라이기가 있다면 안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점심은 매번 홈스테이 가족이 런치박스를 챙겨주셨습니다.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을 싸주거나 샌드위치를 싸주셨습니다. 만약 입맛에 안맞으면 사먹어도 되고, 직접 홈스테이 가족에게 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은 집에서 먹기도 하고, 외식도 했습니다.
교통	교통은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이 있어서 집에서 학교갈 때나 학교에서 다운타운 갈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통카드를 주기 때문에 교통비는 따로 들지 않았고, ZONE에 따라서 요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첫날에 설명을 해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619,5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약 22만원	외식, 카페
쇼핑, 기념품	약 58만원	
입장료, 교통비(교통카드 제외)	약 5만원	
합계	약245만원	환전 900달러 + 카드

5. 출국 전 준비사항

3주 동안 계획을 미리 세워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갈지 미리 찾아보고 가야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리 홈스테이 가족과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챙기지 않아도 될 물건을 최대한 빼서 올 때 무게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기 전에 홈스테이 선물을 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햇반이나 컵라면, 김을 챙겨가는 경우가 있는데 T&T라는 아시안 마트에서 햇반은 못봤지만 컵라면과 김은 있기 때문에 가서 사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샴푸나 바디워시를 챙기실거면 캐나다에서 사서 쓰고 버리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야경이나 밴쿠버 전경을 보고 싶으시면 하버센터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20달러에 하루 종일 올라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언어 실력 향상보다는 캐나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나무도 많고, 예쁜 집들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공기가 맑았고, 날이 좋을 때면 산 정상에 있는 스키장이 보였습니다. 스키장에 꼭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다시 캐나다에 가게 된다면 꼭 스키장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은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캐나다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말도 천천히 해주셔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곳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회가 돼서 다시 캐나다에 올 수 있다면, 더 많은 곳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그랜빌 아일랜드



게스타운 증기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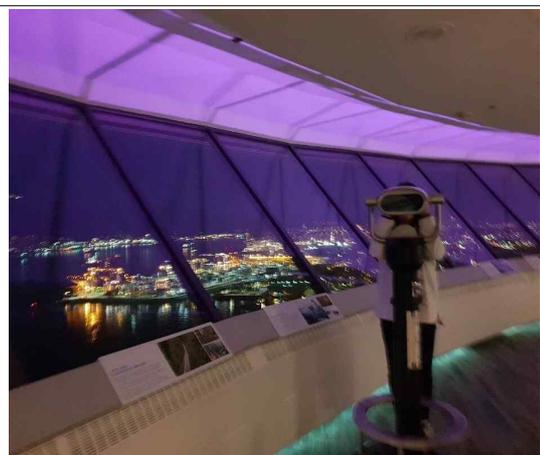
빅토리아 아일랜드



컬링



밴쿠버 박물관



하버센터